금석문에 기록된 고려불교 문중 형성

불교중앙博, 8일 금석문 탁본 조사 학술대회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북 지역 고승비문 탁본을 통해 나타난 고려시대 승단 구조와 형성 등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석문 탁본 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던 경상북도·대구 지역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 지역 금석문 탁본조사를 통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경북지역 고려 고승비 음기의 문도 검토'를 통해 고려시대 승단 구조의 변화를 살펴 눈길을 끌었다.

한기문 교수가 살핀 고승비문은 탁본 조사가 된 경북 고승비 중 △선봉사대각국사비 △운문사원응국사비 △중수용문사기 △인각사보각국존비 4기의 음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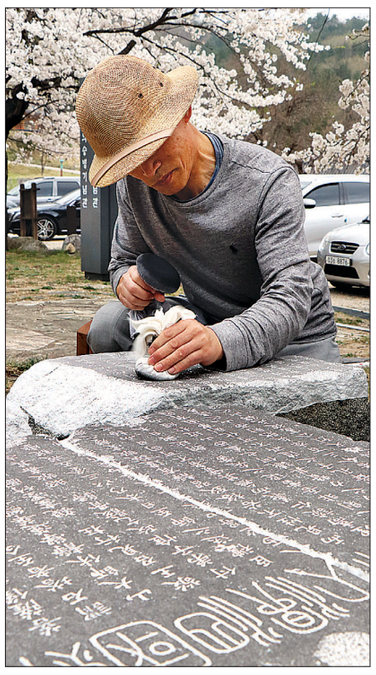
이를 통해 한기문 교수는 4기의 비문마다 문도직명이 달랐음을 확인했다. 실제 법손 대사 이상만 기재된 비문이 있었고, 비직자·법리주지중대사·법리명공·기계명공 등의 직명을 쓴 비문도 존재했다. 또한 사법제자와 집사제자로 분류하거나 대선사·수좌·산림·입선 등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한기문 교수는 "고려 초기 고승비에는 문도에 대한 상세한 명단이 없이 상족·수제자만 기록했지만 사원 강회가 활발해지고 예비·본고시 등 승정제도가 갖춰진 정종 대부터는 교단이 정비되면서 문도 승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도 형성에 승정이 개입되고 문도 이동과 분열이 나타났다"면서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승속일체(僧俗一體) 결사운동의 반영으로 세속 제자 명단이 기재되고 법계와 함께 소속 사원이 명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승 문도의 형성은 종단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지만 승정에 고승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문도가 이동, 분열하기도 해 종단의 안정을 흔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동신 서울대 교수가 '조선 후기 금석첩 편찬과 대동금석서'를, 김용선 한림대 명예교수가 '경북 지역의 일반석문 조사와 의의'를, 김민규 박사(동국대)가 '경상북도의 묘비 건립과 양식 연구'를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석문 탁본조사가 있기에 가능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014~2017년 대구 268건, 경북 1204건 가운데 자문위원회를 거쳐 불교 금석문 61건, 일반 금석문 139건 등 200건을 탁본해 조사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2018년도 금석문조사사업의 책임연구원 흥선 스님이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사명대사사적비편의 탁본을 진행하고 있다.

대각국사비 등 4기 음기 분석
승정제도 등 문도 형성 살펴
고려 정종 이후 문파분열 조짐
경북 탁본 조사 성과들 발표도

2017년 조사의 경우 포항 석남사지 남파대사비·성주 시문용 유허비 등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비문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석남사지 남파대사비의 탁본을 통해 시문이 뛰어났던 계오스님의 필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불교중앙박물관은 "기존 탁본들은 공개돼 있는 자료가 적고, 접근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박물관의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은 주기적으로 탁본을 전시하고 조사결과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석문에 관심을 갖는 학자와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내년 1월 25일까지 경북 지역 금석문 탁본들을 총망라한 테마전 '금석문 탁본전-경북 역사를 두드리다'를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한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 중 대구·경북지역의 금석문 200건을 정리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2건, 보물 3건, 경북 유형문화재 4건을 포함한 총 34개 비의 탁본이 전시된다.

남북 '겨레말큰사전'과 '불교사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15일 불교인문학특강

강연자 한용운 편찬실장 초청
남북 불교용어 교류 방안 제안

북한의 불교용어와 경전 번역을 통한 교류 방안을 소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단은 2018년도 제15회 '불교인문학특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불교인문학 특강은 '남북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의미와 〈불교사전〉'을 주제로 한용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이 강연자로 연단에 오른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의 언어통일을 목적으로 분단 이후 국어학자들이 함께 편찬하는 첫 사전으로 남북의 언어 이질화 극복 및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 후 언어생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에서 뜻이 달라진 낱말의 뜻을 풀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통으로 쓰는 말',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단일화한 말', 기존 남북 사전에 수록되지 못했던 '지역어 및 문헌어'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수록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 20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와 네 차례의 공동집필회의를 했으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공동 작업을 멈췄다. 2014년 7월에 잠시 재개했지만 2015년 12월 중국 다롄에서 제25차 공동편찬위원회회의를 끝으로 다시 중단됐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제26차 편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불교인문학 특강은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의 의미와 더불어,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에 실린 불교 설명 및 남북 국어사전의 불교 용어 수록 현황 등을 소개한다. 또한 경전 번역과 관련한 남북한 불교 교류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조선 왕실원찰 흥천사의 모든 것

한국미술사硏 등 11월 17일 학술대회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던 서울 흥천사의 불상과 문화재 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600년 왕실원찰 서울 흥천사 불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시작은 동국대 명예교수인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흥천사 불상의 성격과 1701년 목조 수월관음보살 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기조발표로 알린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로는 △심주원 조계종 호계원 팀장의 '흥천사 목조 아미타불상과 대세지보살상 연구' △주수완 고려대 前 교수의 '흥천사 명부전 석조 지장·시왕상 연구'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의 '흥천사 노전 약사·아미타·지장보살 연구' △문무왕 동명대 교수의 '흥천사의 불교사상'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고승희 동국대 교수, 신선혜 고려대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사硏 '인문학자 불교학자' 세미나

11월 17일, 동국대 만해관서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11월 17일 오후 1시 동국대 만해관 대강의실 253호에서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 탐구Ⅱ'를 주제로 제22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영호당 정호의 학문과 사상(김상일, 동국대) △퇴경 권상로의 학문과 사상(김경집, 진각대) △무호 백성욱의 학문과 사상(고영섭, 동국대) △범산 김법린의 학문과 사상(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현곡 김잉석의 학문과 사상(임상희, 前 고려대)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오대혁(서울교대), 이재헌(금강삼종대), 최원섭(위덕대), 문광 스님(동국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는 것인가

밝은사람들 24일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2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를 주제로 제17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생각의 이중성, 수행을 통한 통합의 가능성 모색(이필원, 동국대) △병 속의 새는 어떻게 자유를 꿈꾸는가(오용석, 원광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될 것인가(박찬국, 서울대)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본 선과 생각(김성구, 이화여대) △생각, 나를 살게 하는 길은 있는가(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이 발표된다.

발표 교재인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는 연찬회에 앞서 도서출판 운주사가 발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명진관 '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등록 공고… 부산 대통령 관저 사적 지정

동국대 구 본관 건물인 명진관(석조관)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서울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했으며,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등록문화재 제735호로 지정된 '서울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은 1958년 건립됐으며,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송민구가 설계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고딕풍 건물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 석재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록문화재 제736호로는 대전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이 지정됐다. 충남대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가 이천승이 설계해 1958년 건립됐다.



등록문화재 제735호로 지정된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 전경.

이번에 사적 제546호로 지정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와 함께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대학교 건물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2건이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1,000(세로)×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